



초록우산, 장흥서 천사오케스트라 연주회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유성)는 전남도와 함께 ‘2024 천사프로젝트 천사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지난 10일 장흥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2024 천사프로젝트는 전남도 지원을 통해 지역 아동들의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인 ‘천사오케스트라’와 주거개선사업인 ‘천사보금자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세대·계층 간 우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전남 17개 지역의 꿈키움, 영재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대표아동 선발을 통해 총 54명이 함께 연주할 곡을 선정해 각 지역에서 연습한 후, 장흥에서 2박 3일 동안 하모니를 맞췄다.

연주회는 ‘하이드의 시계’,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5번과 왈츠’,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포함한 9곡과 앵콜곡 1곡으로 진행됐고 최혁재 지휘자가 지휘를 맡았다. 박찬 기자



KT전남전북본부, ‘디지털차별 해소’ 캠페인

KT전남전북광역본부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경찰서, NH농협과 함께 나주시 승학마을을 찾아 ‘편리하고 안전한 농어촌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네 개의 기관이 협력해 키오스크 기기의 확산으로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을 해소하고 농어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교통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교육은 KT가 직접 개발한 키오스크 교육용 프로그램을 활용,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IT 기기의 기본 사용법부터 주문까지 직접 체험하는 모의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패스트푸드, 카페, 교통예매, 무인민원 발급, 병원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유형별로 실습할 수 있었다. 박소영 기자



코레일 광주본부, 유관기관 합동 을지훈련

코레일 광주본부는 국가보안시설인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번 훈련은 코레일 광주본부를 비롯해 광산구, 503보병여단 1대대, 공군 제1전투비행단 등 13개 기관, 300여명이 참가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기관별 통합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고속열차 드론 테러 상황을 시작으로 열차 탈선, 화재, 생화학 테러 등 철도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복합적 시나리오에 따라 실전 형태로 진행됐다.

김영진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이번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통해 철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빈틈없는 공조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산구여자태권도선수단, 전국대회 종합3위

광주 광산구는 여자태권도 선수단이 최근 막을 내린 제10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따내며 종합 3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광산구 여자태권도선수단은 지난 8월 7~15일까지 전북 무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겨루기 여자일반부에 출전했다.

이중 유지혜 선수가 -62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광산구 여자태권도선수단의 올해 세 번째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46kg급에선 강현주 선수가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광산구 여자태권도선수단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로 종합 3위를 기록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에도 대회 출전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훈련에 임한 선수단의 열정이 올해 첫 종합 3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며 “올해 남은 대회에서도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도시공사-사회적경제지원센터 MOU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9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광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도시공사 배운식 사업본부장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유진 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광주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 등의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이날 공사는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센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지원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적십자 광주전남,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는 지난 19일 광주 북구치매센터로부터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돼 이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2024년 치매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 직원이 북구치매안심센터의 치매파트너 교육을 수료했다. 또한 적십자봉사와 연계해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고, 치매 관련 홍보물 제작과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재홍 회장은 “치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며 “적십자사는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찬 기자

양재웅 ‘환자 사망’ 논란 여파… 하니, ‘리뷰네컷’ 하차

최근 환자 사망사고로 논란이 있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1)과 결혼을 발표한 EXID 출신 하니(32·안희연)가 MC로 진행하던 TV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20일 JTBC4 리뷰네컷은 20일 “하니가 자진 하차했다”며 “새로운 MC단을 꾸려 다음 달 2일 자정 첫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알렸다.

리뷰네컷은 빠르게 유행이 변하는 시대에 ‘입소문템’ ‘품질대란템’ ‘가성비템’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하니를 비롯해 ‘카라’ 한승연, ‘애프터스쿨’ 출신 유이, ‘뉴이스트’ 백호가 출연키로 했다. 지난달 12일 첫 방송할 계획이었지만, 하니가 하차하면서 촬영 일정을 변경, 기존 MC가 모두 교체될 예정이다.

하니는 최근 예비 신랑인 양재웅의 병원 환자 사망사고의 여파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27일 양재웅의 병원인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마약류 성



양재웅



하니

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A가 가성장 폐색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CCTV에는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복통을 호소하는 A에게 안정제를 먹이고 침대에 묶어 강박하는 등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유가족은 의료진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후 나흘 만인 지난 5월31일 하니와 양재웅의 결혼설이 보도되며 비판이 쏟아졌고, 두 사람은 당초 예정했던 9월 결혼식을 더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광지혜 기자

레드벨벳 웬디, ‘영스트리트’ DJ로 복귀 “꿈만 같아”

인기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 웬디가 ‘영스트리트’ DJ로 다시 돌아왔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SBS 파워FM ‘영스트리트’를 이끌었던 웬디가 지난 19일 약 1년 만에 DJ로 컴백했다. (사진)

웬디는 자신만의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와 진행 능력으로 방송 시작과 함께 청취자들의 수많은 환영 인사를 받았다.

웬디는 “다시 ‘영스트리트’로 돌아온 게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믿기지 않는다. 무엇보다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그리웠었는데, 오래오래 여러분들 곁에서 좋은 에너지 드릴 수 있는 ‘앤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귀 후 첫 방송인만큼 이날은 ‘웬디데이’ 특집으로 꾸며졌다. 웬디는 사연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청취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인 그룹 ‘지오디(god)’의 ‘쫄볼하나’를 즉석에서 부르는 등 진심을 다해 소통을 이어나



가더니 방송 말미에는 레드벨벳 멤버들이 컴백을 축하하는 메시지도 깜짝 등장해 훈훈함을 더했다.

또 웬디는 청취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클로징 멘트도 만들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웬디가 앞으로 이끌 어갈 ‘영스트리트’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민현기 기자

천우희, 데뷔 20주년 맞아 팬들에 역조공… 팬 사랑 인증

배우 천우희(사진)가 데뷔 20주년을 맞아 팬들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20일 소속사 블리츠웨이스튜디오는 지난 2004년 영화 ‘신부수업’으로 데뷔한 천우희가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드라마 ‘히어로’는 아 님니다만’과 ‘더 에이트 쇼’의 흥행으로 의미 있는 20주년을 보내고 있는 천우희는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역조공’을 준비했다.

천우희는 지난 17일 팬카페를 통해 미리 50명을 선정해 팬 사인회를 열었다. 이날 천우희는 모든 팬들에게 각각 다른 메시지를 담아 사인하고 개별 셀카도 모두 찍어주는 정성을 보였다.

이어 18일에는 강남 모처 카페에서 음료를 천우희 사비로 제공하는 이벤트가 열렸다. 이 카페를 방문한 200여명의 팬들에게는 한정판 포토카드와 천우희의 친필이 담긴 머그컵 등이 제공됐다.



컵홀터에는 ‘이거 마시면 우리 20년 더 함께하는 거다’라고 적혀 있었다. 현수막에는 ‘앞으로의 20년, 그저 지금처럼 (For the next 20 years, just like now)’이라는 천우희의 마음이 담겼다. 팬들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엔 우희가 있다’는 메시지로 화답했다.

천우희는 “팬들에게 늘 큰 마음을 받아왔다.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팬들이 준비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마음을 드리고 싶었다. 짧은 이벤트였지만 저도 앞으로 더 나아갈 에너지를 채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천우희는 상반기에 방영된 두 작품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최근 금융, 패스트푸드, 뷰티 등 광고를 섭렵하고, 매거진 표지를 장식하는 등 ‘광고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현기 기자